

## “콘크리트도 技術이나?”

申 鉉 默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지난해 우리는 우리의 오랜 宿願인 콘크리트學會를 出帆시켰다.

시멘트를 하는 이, 2次製品을 하는 이, 建設하는 이, 設計하는 이, 研究하는 이, 教育하는 이 모두가 “콘크리트”를 위하여 한데 어울릴 수 있는 場이 마련된 셈이다. 우리 學會의 밝은 내일을 내다 보면서 평소 느끼고 있던 바를 적어 함께 생각해 보고저 한다.

### 콘크리트도 技術이나?

콘크리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다. 집을 짓는 데에도 콘크리트, 다리를 놓는 데에도 콘크리트이다. 시멘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다. 방 바닥을 바르는 데에도 시멘트, 부뚜막을 바르는 데에도 시멘트, 장독대를 쌓는 데에도 시멘트, 下水道를 고치는 데에도 시멘트, 쥐 구멍을 막는 데에도 시멘트이다.

시멘트를 물에 개어 바르거나, 시멘트에 모래를 섞어서 물로 개어 바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을 섞고 물로 반죽해서 필요한 곳에 부어 넣으면 단단하게 굳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또 이 일은 누구든지 해낼 수 있다.

그래서 政府의 어느 높은 분이 “콘크리트도 技術이나?”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또 그런 말씀이 나옴직도 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그 높은 분의 無識을 탓하기에 앞서, 어

찌하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개탄이 앞선다.

하찮은 構造物인 데도 일일이 슬럼프를 측정하면서 꼼꼼하게 일을 進行시켰던 日本의 어느 工事現場을 본 일이 있는 筆者는, 플라이 애쉬의 過度한 混入으로 콘크리트가 응결 경화하지 않아 애태우던 어느 工事現場을 우리나라에서 본 일이 있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 日本人은 모방의 천재인가?

日帝時代の 어린時節, 國民學校 다닐 때 日本人은 원숭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은 기억이 있다. 그 까닭은 日本人은 원숭이 모양으로 남의 흉내를 잘 내기 때문이라는 것이 었다. 이것은 日本이 開化를 서두를 때, 무조건 西洋을 모방한 데서 연유한 말이다. 洋服을 입기 시작한 데서부터, 西洋의 文物을 받아 드리고 그 學問과 技術을 도입하고 모방하는 데 熱中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의 日本을 있게 한 根源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日本人들은 自己技術, 즉 그들의 獨自的 技術이라는 뜻의 말을 자주 하게 되었다. 콘크리트分野에서도 그러한 말이 그들 사이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超早強시멘트의 開發이나 高性能減水劑의 開發들이 그러하다고 큰 소리이다.

모방도 훌륭한 先生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도 先進諸國의 技術을 모방하고 開化하는 단계를 거쳐, 하루 빨리 우리의 獨自의인 技術開發을 서둘러야 하겠다.

## 마감과 마무리

하나의 用語인 “finish”가 建築에서는 “마감”으로 쓰이고 있고, 土木에서는 “마무리”로 쓰이고 있다. 옳고 그르고, 잘 되고 못 되고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다. finish를 하나의 우리말로 統一할 필요는 누구나 同感할 줄 안다.

이 일은 우리 學會가 試圖해 보아야 할 問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밖의 用語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設計規準과 設計法에 있어서도 建築에서는 “철근콘크리트 설계기준”에 따르고 있고, 土木에서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르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歐美各國에서는 모든

콘크리트構造物의 設計規準이 하나의 code로 통용되고 있다. 이 일도 우리 學會가 하나의 設計規準으로 統一하도록 試圖해 봄직한 重要한 課題의 하나라 생각한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日本에서도 用語나 設計規準의 統一을 試圖한 바 있으나,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後代를 위하여 이 일은 꾸준히 試圖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現在까지 土木이나 建築의 示方書나 設計規準이 日本이나 美國의 그것에 치우쳐 왔음은 여러가지 事情上 부득이 하였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유럽의 그것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본다. 특히 設計規準의 統一을 위해서는 CEB-FIP의 model code가 좋은 본 보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두서 없는 雜文이 된 점 양해를 구하면서 이만 이 글을 맺는다.